



제목	The World of Persian Literary Humanis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2. 11. 20.
저자	Hamid Dabashi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64
ISBN 또는 ISSN	978-0674067592

내용 요약

인본주의는 서구의 시각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때로는 모든 이념 위에서 균립하고, 때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 왔다. 『페르시아 인본주의 문학 세계』의 저자 다바시(H. Dabashi)는 1,400년간 유지되어 온 페르시아 인본주의 문학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비유럽적인 관점에서 인문주의를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페르시아 문학에 대한 설문 조사는 거의 없다. 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 문학 작품을 규명하거나 정의 내리는데 필요한 설문 조사를 포괄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페르시아 문학의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이를 위해 일반 독자들과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 책은 제목과 달리 페르시아어로 쓰인 작품과 작가들의 휴머니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물이 아니다. 시와 시인에 대한 번역은 거의 없고, 대신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페르시아 문학의 인문정신을 감소시키는 세속적인 요소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